

문화예술로 치유 '지역사회 통합 모델' 구축 앞장

광주문화재단, 문체부 공모 선정 3년간 본격 추진 6개 기관과 협약·취약계층 발굴·프로 개발·운영

광주문화재단이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및 중독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문화예술 기반 통합 치유 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광주문화재단은 최근 빛고을시민문화관 다목적실에서 '2026 문화로 치유 지원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역사회 치유 통합모델 구축을 위해 광주 북구 등 지역 내 6개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광주 북구, 주택관리공단 광주·전남지사, 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광주시사회서비스원, 동강대학교 등 6개 기관이다.

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공모에 광주문화재단이 선정돼 국비 1억원을 확보하며 추진된다. 전국에서 단 4개 기관만 선정된 문화로 치유 지원 지역사회 치유 협력모델 구축: 마음치유, 여럿같이 사업은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고립 및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지역 내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문화예술 기반의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3년간 지속된다.

올해 사업은 광주 북구 두암3동 LH 영구임대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특히 가족 상실을 경험한 일교를 의논 및 중독 고위험군 중장년 남성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과 전문적인 상담·사

회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공모에 광주문화재단이 선정돼 국비 1억원을 확보하며 추진된다. 전국에서 단 4개 기관만 선정된 문화로 치유 지원 지역사회 치유 협력모델 구축: 마음치유, 여럿같이 사업은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고립 및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지역 내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문화예술 기반의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3년간 지속된다.

올해 사업은 광주 북구 두암3동 LH 영구임대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특히 가족 상실을 경험한 일교를 의논 및 중독 고위험군 중장년 남성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과 전문적인 상담·사



광주문화재단은 최근 빛고을시민문화관 다목적실에서 '2026 문화로 치유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역사회 치유통합모델 구축을 위해 광주 북구 등 지역 내 6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레관리를 연계한 통합 치유 서비스를 제리까지 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한다. 이를 위해 협약 기관들은 대상자 발굴부

터상담, 사례관리, 프로그램 운영, 성과관

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광주 북구는 거점 공간과 행정 지원을, 주택관리공단 광

당한다. 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문 상담과 치료 연계를 맡고, 광주시사회서비스원의 치유 모델 자료와 동강대학교의 영화·미디어 분야 전문성이 더해져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대표 프로그램인 블루아저씨의 리플레이(RE:play)는 영화를 매개로 한 문화 예술교육이다. 참여자들이 자신의 삶을 기록하고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찾고 사회적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향후 주민 참여형 영화제 등 단계별 프로그램을 통해 치유 모델의 효과성을 검증한다.

한편, 재단과 협약 기관들은 현재 지원 대상자 발굴 및 모집 절차를 진행 중이며, 발굴이 마무리되는 대로 오는 6월 말부터 본격적인 치유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광주 북구청 조관현·김현영, 국제검도무대서 '은'

아시아·오세아니아선수권 국가대표 활약·단체전 준우승

광주 북구청 검도부 조관현·김현영이 활약한 한국 검도 국가대표팀이 국제대회 단체전 준우승을 차지했다.

광주 북구는 조관현·김현영 선수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최근 일본 도쿄 무도관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오세아니아 검도선수권대회'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처음 개최된 이번 대회는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의 검도 보급과 저변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열린 대회에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중국, 대만, 몽골,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등 23개국 270

여명의 선수가 참가해 기량을 겨뤘다. 대한민국은 선수 16명을 포함한 총 43명의 선수단을 파견했다. 북구청 검도팀 소속 조관현과 김현영도 국가대표로 선발돼 단체전에 출전하며 국제무대에 나섰다.

대표팀은 대회 초반부터 안정적인 경기력을 선보였다. 몽골과 카자흐스탄, 태국을 차례로 꺾으며 결승에 진출했고, 결승전에서는 검도 중추국 일본과 맞대결을 펼쳤다.

한국은 선수 전원이 끝까지 투혼을 발휘했지만 일본의 벽을 넘지 못하며 0-4로 패했다. 아쉽게 우승 문턱에서 멈춰 섰지만 국제대회 단체전 준우승이라는 값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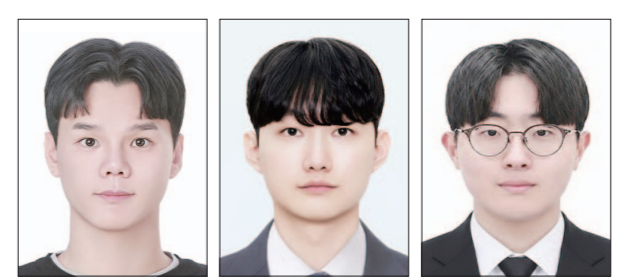
광주 북구청 검도부 조관현·김현영이 활약한 한국 검도 국가대표팀이 국제대회 단체전 준우승을 차지했다.

성과를 거두며 한국 검도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특히 조관현과 김현영은 국가대표 선수로서 국제무대 경험을 쌓으며 향후 활약

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광주 북구는 이번 등산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대표로 활약한 두 선수에게 포상할 계획이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호남대 소방행정학과 학생 3명, 소방공무원 합격

호남대학교 소방행정학과(학과장 김용철) 양윤서(3년), 김지윤(2년), 신요섭(1년) 학생이 2026년도 지방 소방공무원 채용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양윤서, 김지윤, 신요섭 학생은 각각 광주시, 전남도, 전북도 소방공무원 임용시험에 도전해 평균 10대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학과에서 시험, 중립적성검사, 면접시험 등의 전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하면서 5월29일 최종 합격했다. 양윤서 학생은 "그동안 소방행정학과

의 도움으로 소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최종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학과에서 시험, 중립적성검사, 면접시험 등의 전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하면서 5월29일 최종 합격했다.

맞춤형 교육 커리큘럼을 성실하게 이행해 온 덕분에 소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최종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학과에서의 모든 경험들이 앞으로 사명감과 전문성을 겸비한 소방관으로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합격 소감을 밝혔다. 김민수 기자 joinus@

영플란트치과의원 '정기후원자 명예 현판' 부차

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 아름다운 후원 문화 확산

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은 꾸준히 후원 활동을 해온 영플란트치과의원에 최근 '정기후원자 명예 현판'을 부착했다.



이번에 부착한 명예현판은 후원자들의 따뜻한 마음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아름다운 후원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영플란트치과의원은 복지재단을 통해 지속적인 나눔과 성원을 보내며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후원처다. 복지재단은 지난해 처음으로 5개소에 '정기후원자 명예 현판'을 부착했으며, 올해는 10개소 목표에 처음으로 영플란트치과의원을 선정해 부착했다.

장민석 재단 사무처장은 "지역사회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꾸준히 마음을 나누주시는 후원자분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영플란트치과의원을 시작으로 후원자들의 후원활동이 널리 알려져 살기좋은 따뜻한 공동체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kjin@gwangnam.co.kr

광주기독병원, 역사·미래 잇는 '카딩턴 기념관' 개관

광주기독병원은 최근 '카딩턴 기념관 개관 감사 예식'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개관한 카딩턴 기념관은 '씨앗에서 숲으로, 계승과 도전으로 미래를 열다'라는 가치 아래, 광주기독병원의 뿌리이자 정신적 지주인 제5대 병원장 카딩턴(한국명 고하번) 선교사의 숭고한 사랑을 병원의 미래 비전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설립됐다.

광주기독병원은 기념관 개관을 통해 1951년 전쟁의 포화 속에서 병원(당시 광주제중병원)을 재개원하고, 결핵 퇴치와 소외계층 치료에 앞장섰던 카딩턴 선교사의 헌신과 역사적 정체성을 확고히 정립하게 됐다.

기념관은 단순 유물 전시 공간을 넘어 광주기독병원이 지난 한 세기 동안 수행해 온 선진 의료 도입과 지역사회 근대화



광주기독병원은 2일 '카딩턴 기념관 개관 감사 예식'을 성황리에 마쳤다.

의 발자취를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역사적 거점'으로 운영된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카딩턴 선교사 헌신·정체성 정립

지역사회 근대화 발자취 체계적 보존

이번 감사 예식은 박일영 목사의 지도를 시작으로, 이승욱 병원장의 개관 인사말, 병원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기념 세리머니 순으로 진행됐다.

이승욱 광주기독병원장은 "카딩턴 기념관 개관은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위해 '거저 대장'이 돼 삶을 바쳐 봉사했던 카딩턴 선교사의 고귀한 희생을 우리 의료 현장에 재현하는 첫걸음"이라며 "그가 보여준 사랑은 병원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환자들을 향한 우리의 실천적 고백으로 흐르게 하는 뜻깊은 전환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게시판

- 알림**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월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 △사랑마루협동조합 취약계층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응급·장례지도사사무지원 062-369-4009.
- △이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혼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임시 상담.

-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 모집** △구당침·뜸 수강생=가족건강관리, 노후 건강을 위해 '배워서 남주자'란 모토로 구당침·뜸 수강생 모집. 관심있으신 분 누구나 가능. 뜸사랑 광주·전남지부 문의 062-521-3999.
- △시니어물레니도사(자격반)=시·군·구 지부모집, 한 국지매에광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 △사회공헌활동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 신청=취업상담·직업훈련·일자리 알선·교통비 등 취업지원, 긴급원호·속식제공·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은세 (음력 4월 19일)

- 48년생 그 부둥간 거래 될 것이니 밀어부쳐라
- 60년생 대로를 걷는 것이 편하고 빠른 길이다
- 72년생 우회하더라도 지장이 없다
- 84년생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
- 88년생 화가 나더라도 때와 장소를 가려라
- 96년생 화가 나더라도 때와 장소를 가려라
- 51년생 여자로 인해 사업 부도를 낼 수 있다
- 63년생 상승 거점 전환기에 와 있다
- 66년생 아무런 이상 없으니 안심해도 된다
- 75년생 너무 잘해 주는 이들을 주의하라
- 87년생 감언이설에 넘어가면 재물을 잃는다
- 99년생 인연 없는 시기
- 54년생 욕심은 금물 한발 물러서라
- 66년생 아무런 이상 없으니 안심해도 된다
- 78년생 의욕 넘치는 하루
- 90년생 떠난 것에 미련을 갖지 말 것
- 57년생 관재수 발생하니 다투지 마라
- 69년생 상대의 배려에 뜨겁게 감동 받았다
- 81년생 어려운 일이 잘 풀리니 비빌 것 없다
- 93년생 일취월장할 수 있다

- 49년생 스스로 화를 불러들인 날
- 61년생 소모적으로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 73년생 구설수에 오르면 감당하기 어렵다
- 85년생 전환점이 될 만한 사건이 발생 한다
- 97년생 화 부르리니 말을 참부로 하지 말라
- 52년생 상당히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 64년생 술 다 취하려면 둘 다 읽는다
- 76년생 내 주장 강하면 손해 보게 된다
- 88년생 소강상태를 접어들어 호전 되겠다
- 55년생 만사 제쳐 두고 도와줄 일이 생긴다
- 67년생 입은 입으로 말하는 법이라
- 79년생 오랜 친구가 배신 할 것이다
- 91년생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다
- 58년생 신앙을 두렵게 하며 기다려야 한다
- 70년생 시비 구설 초래하게 된다
- 82년생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힐 수 있다
- 94년생 사전에 미리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

- 50년생 문서에 연루돼 지리에 누울 수 있다
- 62년생 지속성이 복으로 이끌 것이다
- 74년생 허황된 투기는 삼가야 한다
- 86년생 바람같이 왔다가 바람같이 사라질 인연
- 98년생 남자를 가까이하지 마라
- 53년생 황제성의 재물이 생긴다
- 65년생 기만하게 응대해야 한다
- 77년생 모든 일에 감정의 이익이 생기는 운
- 89년생 뜻이 높고 원대하니 큰 뜻을 펼치겠다
- 56년생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느니라
- 68년생 재물 생기겠지만 배우자와 충돌 조심
- 80년생 능력자의 도움으로 투자 성공 할 것
- 92년생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게 되겠다
- 59년생 관청사비로 피곤하게 되니 다투지마라
- 71년생 화가 복이 돼 돌아올 것이니 격정말라
- 83년생 배우자 말에 상처를 입는 운
- 95년생 궁극적으로 통합될 수 있는 마당이다